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윤재웅  
동국대학교 교수

장마철에 접어들어도 마른장마가 지속 되더니 어느새 국지성 호우가 물폭탄을 쏟아 붓는다. 모자라도 걱정, 넘쳐도 걱정이라더니 여름 한 철 강수량이 꼭 그렇다. 예측 가능하다면 딱이나 좋을까.

장마철엔 비가 오래도록 많이 내리야 제격이다. 산과 들이 충분히 젖고, 저수지가 만수위에 올라 넘쳐져야 안심이다. 농부는 눈에 물꼬를 더주고 공무원들은 지난해에 넘쳤던 도심 하수구를 새로 정비한다.

그러는 사이 천산만야의 풀과 나무들은 무럭무럭 자란다. 절기도 질서가 있어야 제격인 법이다. 주룩주룩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삶의 축축한 비애를 한 장의 빈 대덕으로 달래보는 소시민들의 심사는

장마 끝에 보이는 푸른 하늘

제법 풍류에 숙한다. 제격이건 풍류건 그런 빛속 풍경이 문득 그림다. 요즘 장마비는 예측하기 어렵다.

윤홍길의 소설 '장마'에 보면 빛속 풍경은 '제격'도 '풍류'도 아닌 하나의 상징이다. 현대사 최고의 비극과 갈등이 압축돼 나타나는 것이다.

한국전쟁 기간 중 외할머니가 할머니 집으로 피난살이를 온다. 두 할머니의 아들들은 국군과 빨치산이다. 소년 화자인 '나'에게는 외삼촌과 삼촌이 된다. 전사한 외삼촌을 그리워하면서 외할머니는 문득 비내리는 앞산을 바라보며 바위 새에 숨은 '빨갱이'를 다 쫓아가고 저주한다.

그 소리를 들은 할머니는 격분한다. 더 부살이하고 있는 사돈의 저주는 금기 위반을 넘어 전쟁선포와 다름없다.

마을의 소경 점쟁이는 모월 모일에 아들이 틀림없이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하지만 그 날 나타난 것은 빨치산 삼촌이 아니라 큰 구렁이다. 동네 아이들은 구렁이를 향해 돌을 던지고 막대기로 치며 쫓아 버린다. 이를 본 할머니는 기절하고 외할머니가 뒷일을 수습한다. 그녀는 나타난 뱀을 자신이 저주했던 빨치산 사돈의 혼령이라 생각하고 잘 달래서 좋은 곳으로

보낸다. 뒤에 깨어난 할머니가 이를 알고 사돈 간에 화해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정말 지루한 장마였다"는 진술이 소설을 마감한다. 장마의 끝과 함께 사람들 사이의 접어진 대립도 끝난다.

여기서의 장마는 한 집안의 갈등과 비극적 상황을 암시하면서 한국전쟁의 민족적 아픔을 극화한다. 갈등의 해소와 비극적 아픔의 치유를 통한 화해가 작가가 말하고 싶었던 분단 극복의 방안이다. 1980년에 발표된 중편소설이다.

장마철에 문득 이 소설이 생각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소설 속의 갈등과 비극적 상황으로부터 여전히 자유롭지 않다는 점 때문이다. 분단 이래 남북한의 대치는 소설 속 '빛속 풍경' 그대로다. 두 어른 사이의 갈등은 남북의 갈등구조를 빼닮았다. 35년 전, 작가가 상징적으로 갈라뻐던 화해의 요청은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주에 통일준비위원회가 출범했다. 대통령이 위원장이고 위원이 50명에 이르는 특별조직이다.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연구가 이뤄지고 수많은 시나리오에 대한 실무 검토가 진행될 모양이다. 외교적 상황관리가 막중할 것이다. 그에 못지않게 민족 내부적으로도 준

비해야 할 사안들이 많을 듯하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해가 중요하다는 점을 이미 한 세대 전에 작가가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두 갈등 주체들은 이념적 판단이나 경제적 득실에 따라 화해하는 것이 아니라 맺힌 감정을 풀어버림으로써 평온에 이른다. 민족 화해에도 감정적 영역이 중요한 단초가 된다는 뜻이다.

남과 북이 오래 헤어져서 이념과 관습과 문화가 많이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것은 있다. 바로 감정이다. 슬프고 기쁜 것, 장엄하고 아름다운 것 앞에서는 모두가 똑같다. 감정의 교류를 통한 동질성 회복은 막대한 통일비용을 줄이는 선결과제다. 북한의 인연·아시안게임 참가, 금강산 관광 재개 등 기회는 많다.

통일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지혜롭다면 감정교류를 통한 동질성 회복을 통일 준비의 중요한 내용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그것이야말로 한용운 시인이 노래한 '푸른 하늘'이 아닐까. 명시 '알 수 없어요'의 한 구절이 떠오른다. '지리한 장마 끝에 서풍에 물러가는 무서운 검은 구름의 터진 틈으로 언뜻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의료칼럼

사람마다 눈동자 색이 다른 이유



박진우  
보리안과병원 원장

가수 이수영씨가 부른 '얼마나 좋을까'라는 노래를 들어 본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요즘 학생들은 모를지 모르지만 꽤 유명한 곡이다.

눈동자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서 이 노래를 언급하는 이유가 궁금할 것이다. 이 곡은 일본의 유명한 게임인 '파이널판타지 10'의 주제가이기도 한데, 이 게임의 여자 주인공 유나(Yuna)는 오른쪽은 푸른 색, 왼쪽은 초록색 눈을 가지고 있는 강력한 소환 마법사이다. 이렇게 양쪽 눈

동자의 색깔이 다른 경우를 'Odd eye'라고 한다. 실제로 아주 드물게, 정말로 존재하는 현상이다. 이런 다른 눈동자 색깔은 중세시대에는 마녀로 취급받기 쉬웠다. 하지만 뭔가 엄청난 포스가 느껴져서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등의 캐릭터에 사용되고 간혹 컬러 렌즈를 이용해 이것을 따라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눈동자 색깔은 어떻게 결정될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의 피부색이 다르듯 눈동자 색깔도 개인마다 다르고 인종에 따라 차이도 보이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색소 농도의 차이로 조금 변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눈동자(pupil)라고 하면 눈의 검은 동자 안에 있는 예기동자 즉 빛에 따라 커지고 작아지는 부분을 말하고, 그 눈동자를 움직이는 조직이 홍채(iris)다. 따라서 눈동자 색깔은 바로 홍채의 색깔에 따라 결정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한 갈색 계열이고 북미나 유럽은 푸른 빛의 홍채색깔이다. 홍채에는 많

은 혈관들과 멜라닌을 함유한 피부세포와 유사한 조직들이 분포해 있다. 물론 눈동자 크기를 조절하는 근육들도 있다. 특히 이런 멜라닌 함유 세포들의 색소 함유량의 차이와 색소가 빛을 받아 반사되는 스펙트럼이 개인마다 달라 사람마다 고유 색깔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최근 보안기술이 좋아지면서 아파트들에는 지문 인식으로 문이 열리는 경우가 많은데, 미래에는 홍채인식 기능도 사용될 수 있다. 이때는 홍채의 색깔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지문처럼 홍채에 있는 혈관들을 이용한다. 이 혈관들은 개인별로 독특해, 똑같은 사람이 존재할 수 없다고 한다. 물론 영화에서처럼 안구를 빠른 시간 내에 제거하면 '키'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안구가 적출되면 혈관들도 다치게 되어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홍채의 혈관들이 막혀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는 없어서 안전한 보안 시스템으로 여겨지고 있다.

요즘 컬러렌즈 혹은 써클렌즈 등을 사

용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 이러한 컬러렌즈는 눈 색깔을 조정하기 위해서 사용한다기보다는 눈의 검은 동자의 크기를 크게 보이게 하여 선명한 눈빛을 만들기 위해 주로 사용한다. 하지만 눈의 눈꺼풀 사이가 좁은 경우는 반대로 크기가 큰 컬러렌즈를 사용하면 눈이 더 험없이 보이고, 렌즈 자체의 조잡함이나 크기 때문에 산소투과율이 떨어져서 각막염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가끔 저 짧은 시간, 비교적 품질이 좋은 렌즈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로부터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해, 맑고 선명한 눈빛을 중요하게 생각해왔다. 눈동자의 색깔도 심신이 건강한 경우에 더욱 깊고 안정적인 색깔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 너무 많은 자외선 손상이나 약물 사용 등이 색깔을 변화하게 할 수 있으므로 또렷한 눈빛을 원한다면 개인위생에 신경 쓰고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건강한 하루하루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社說

세월호 참사 100일 그 교훈 다시 새기자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늘로 100일을 맞았다. 24일 현재 세월호 희생자는 총 294명, 실종된 10명은 여전히 차가운 바다 속에서 구원을 해매고 있다. 그로 인한 전국민의 충격과 슬픔, 고통, 분노도 '현재 진행형'이다.

하지만 100일이 지난 지금 그 교훈을 뼈저리게 새기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점점 흐려져 가는 사고 당시의 기억과 함께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각오와 과제마저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서기 때문이다.

사실 세월호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다. 우리 사회에 만연된 안전불감증과 천박한 물질 숭상주의, 부패한 관료사회와 무능·부정으로 얽힌 대한민국의 민낯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똑똑히 보여줬다. 그러면서 우리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금 느끼고, 안전에 대한 의식도 달랠 것 같다.

그러나 우리 정부와 정치권의 상황 인식은 이와는 판판이었다. 먼저 세월호 사고 책임만 놓고 보더라도 사의를 표명한 정충원 총리를 '도로'로 유임시키는가 하면 자질이 의문시되는 몇 명

의 장관을 바꾼 게 전부였다. 국가 대개 일을 맡았다. 24일 현재 세월호 희생자는 총 294명, 실종된 10명은 여전히 차가운 바다 속에서 구원을 해매고 있다. 그로 인한 전국민의 충격과 슬픔, 고통, 분노도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 100일 동안 가슴 저리는 경험을 하고서도 인재(人災)로 인한 사고는 끊임이 없었고, 유병언 변사체 발견에서 보여준 검찰과 경찰의 무능, 무기력은 또다시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도 장기간 표류 중이다.

한편으로 정부가 세월호 참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도를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했지만 지원은 말 뿐이었다. 수산물 판매량과 관광객이 급감해 지역경제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으나 피해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제 우리는 세월호 사고의 문제점들을 뿌리째 들어내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 데 전력투구를 해야 한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안전에 대한 인식을 다잡고,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 앞에 다짐해온 쇄신 약속과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진도 주민들의 눈물도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

정치권, 세월호 특별법 이젠 매듭지어야

세월호 참사 100일을 맞았지만 정확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해 추진 중인 세월호 특별법은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다. 희생자 가족들이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까지 벌이고 있음에도 정치권은 당리당략에 얽매어 공방에만 몰두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 6월 19대 국회 후반기 첫 임시국회를 열면서 '세월호 국회'로 명명했지만 주요 법안은 단 한 건도 통과시키지 못했다. '빈손 국회'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자 21일부터 다시 임시국회를 소집했으나 최우선 입법 과제로 꼽은 '세월호 특별법'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은 수사권을 가

진 특별사법경찰관을 두어 조사관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새누리당은 그 것이 형사사법 체계를 흔들고 전례가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22일 양대 정쟁위의장과 TF(태스크포스) 간사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2+2 협상'에서도 새정치연합은 진상조사위에 여야가 합의한 특별검사를 포함해 제한적으로 수사권을 주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희생자 가족들의 주장처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첫 걸음'이다. 여야는 더 이상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진지하게 대화에 임해야 한다. 그것이 전대미문의 참사로 찢긴 국민의 마음을 보듬고, 희생자 가족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치유하는 길이다. 대승적인 자세로 조기에 합의의 틀을 열어줘야 한다.

無等鼓

유병언 음모론

세인들을 놀라게 할 만한 대형사건 뒤에는 은갖 추측들이 난무하면서 '음모론'이 제기되기도 한다. '로큰롤의 황제'로 불렸던 엘리스 프레슬리가 대중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죽음을 가장하고 사라졌으며 지금도 어디에선가 은거하고 있다는 설이 대표적이다.

아폴로 11호 달착륙 연출설도 있다. 미·소 냉전의 절정기에 소련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호가 발사되자 우주개발 경쟁에서 뒤질 것을 걱정한 미국이 세트장을 마련해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을 연출했다는 설이다.

9·11 테러 음모론도 그렇다. 미국 정부가 2001년 알카에다의 테러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 데도 묵인했다는 것이다.

온 국민을 충격과 슬픔에 잠기게 했던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 씨의 사체가 발견됐다. 이를 두고도 인터넷에서는 음모론이 피어나고 있다.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인력을 동원한 검·경이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사신이 발견돼 사망 원인과 의문점을 두고 각종 설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음모론의 배경에는 지난 6월 12일 유 씨의 비밀배장 인근에서 변사

체와 유류품을 발견하고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헛발질만 하고 다닌 검·경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크게 작용했다.

음모론은 '사인 진위' 여부와 그의 '사인'에 대한 의혹을 놓고 제기된다. '살해된 후 유기됐다' "누군가 사체에 옷을 입혔다" "유전자 샘플이 바뀌었다" 등 추리소설 같은 주장도 많다. "아직 살아있다" "밀항해 어딘가에서 웃고 있을 것이다" 등 생존설도 있다. 보물선거를 1주일 남겨 놓은 시점에서 사체 발견이라는 전격 발표에 대한 갖가지 추측도 따른다.

이러한 설들과 온갖 추측들은 죽은 지 2개월가량 되는 사람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재발부한 웃지 못할 검·경의 작태에 대한 조롱일 수 있다. 검·경의 총체적 무능 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의 목소리가 음모론으로까지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검·경은 하루빨리 유병언의 죽음과 관련된 의문점들을 명백히 규명하고 밝혀야 한다. 시기를 놓치면 유 씨의 유령이 또다시 검·경을 조롱거리로 만들지 모른다.

/최재호 사회부장 lion@kwangju.co.kr

기 고

기능성 화학소재, 전남경제의 새 희망이 되다



정순주  
전남도 경제과학국장

기능성 화학소재는 비싸게 팔리는 제품이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플라스틱이 범용 화학소재라면, 2차전지 분리막이나 모바일 복합시트 등 제품생산에 필요한 특수기능을 가진 것이 기능성 화학소재다.

예를 들어 원유 등에서 뽑아 쓸 수 있는 나프타는 각종 화학제품의 주원료다. 물론 연료로도 쓸 수 있다. 이 나프타 한 드림을 원료로 쓰는 것 보다 이를 이용해 플라스틱으로 만들면 부가가치가 4배로 늘어난다. 그러나 이를 기능성 화학소재로 변환하려면 10배에서 20배까지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한다.

기능성 화학소재의 활용범위는 무궁무진하다. 특히 주력산업 및 신산업 분야에서 더욱 그렇다. 경량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공해방지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글로벌 자동차업체가 주목하고 있는 것도 이 분야이고, 영화 아이언맨 주인공이 보는 현란한 모니터 화면이 이것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휴대폰, 반도체, 3D프린터, 의약품, 2차전지 등 각종 산업분야의 첨단기술 구현을 위해서도 기능성 화학소재 개발 및 활용은 필수적이다.

특히 그 특성상 대규모 설비중심의 범용 화학소재에 비해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인 기능성 화학소재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중소기업에 적합하다. 때문에 경제 파급효과 또한 즉시적이고 전방위적이다.

그러나 석유화학 선진국인 우리나라는 아직 기능성 화학소재 분야에서는 뒤처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세계 5위의 석유화학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기능성 신

소재 부문은 선진국의 70% 수준이다. 세계 제일의 디스플레이산업 강국이면서도 평판관 소재인 PVA 필름은 95% 이상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전남도는 한국의 기능성 화학소재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우수석유화학단지 및 광양만권 석유화학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광양만을 중심으로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를 만들 계획이다. 광양만권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기획재정부의 2014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특히 산업부의 제3차 소재부품발전 기본계획(2013~2016년)과 국토부의 동서통합지대 기본 구상안에 포함돼 있다. 예비타당성조사서 거쳐 사업이 확정되면 전남도는 2015년부터 5년간 국비+지방비+민자 1500억원을 투입해 광양만권을 중심으로 '기능성 화학소재 4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관련 산업 발전을 견인할 계획이다.

사전타당성 분석에 따르면 광양만권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는 국가적으로 9조6000억원의 생산유발, 4만80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이는 대부분 전남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것이다. 특히 지역내 화학소재 관련 산학연 연구주체를 클러스터로 유인하고 지역 기업들의 훌륭한 인프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이미 화학제품 특화단지로 조성돼 있는 광양만권을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로 확대, 조성해 노후화 및 성장 한계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은 여수 석유화학단지의 질적 전환을 통한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능성 화학소재는 적어도 전남지역에서는 이제 더 이상 생소한 단어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키워드이다. 지난 반세기동안 지역경제를 지탱해온 여수·광양만 산업단지는 앞으로 기능성 화학소재라는 새로운 옷을 입고 전남경제를 지탱하는 또 다른 반세기를 준비할 것이다.

학교 주변 경품뽑기 기계 마구잡이 설치 단속을

대부분,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주변 문방구나 골목길을 지나다 보면 경품 뽑기 기계가 심심치 않게 설치되어 영업을 하고 있는 걸 본다. 그런데 이게 누가 봐도 불법영업인 게 느껴져서 마음이 꺼림칙하다. 이런 불법 게임기가 성행하는 이유는 100% 현금정사인 데다 영업 수입을 신고하거나 세금을 낼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 한다.

경품 뽑기 게임기는 원래 법적으로 건물 안에 설치해야 하고, 게임기 속에는 소비자 판매가격 5000원 이상의 경품을 넣을 수 없다고 한다. 또 초, 중, 고등학교 200m 이내에는 게임물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게임기는 도심뿐만 아니라 주택가, 초등학교 앞까지 침투해 읍시점과 읍집, 커피숍 등 각종 영업소앞에 설치돼 있다.

게임기 경품으로는 인형뿐만 아니라 무선 레이싱카, 무선 헬기, 망원경 등 완구·문구류와 이어폰, USB, 스피커, 스탠드, 블루투스, 음주측정기, 충전기, 차량용 가습기, 블랙박스 등까지 다양하

였다. 호신용 스프레이(최후방위), 라이터, 면도기, 수갑, 휴대용 칼, 여성 속옷, 성인용품 등도 적잖다.

뽑기 게임기가 이렇게 여기저기 마구잡이로 설치되고 영업을 하는데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경찰에서 단속을

해도 대부분 영세업자의 설치물이다 보니 인정상 봐주거나 계도 정도로 그치기 때문이라 한다.

행정기관에서 인정장 좀 봐주면 업자들 스스로 영업규칙을 지키고, 게임기를 건물 밖으로 내놓지 않는 등 범의 테두리 안에서 영업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런 뽑기 게임기에 청소년 학생들이 장시간 빠져 도박의 유혹에 빠질 수도 있으니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추진실·광주시 동구 산수1동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편 집 부 2200-649	문 화 생 활 부 2200-661	광 고 마 케 팅 국 227-9600	독 자 서 비 스 국 2200-551
정 치 부 2200-642	여 론 매 체 부 2200-696	< F A X 227-9500 >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프 로 젝 트 팀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